



불가리아를 향한 학생이네 가정행진

MAY 2024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9)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저를 향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의 마음에 합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겸손함으로 몸부림치며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도 부인되지 않는 제 자아가 순간순간 치고 올라오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더 낮아지고, 관계 속에서는 더 겸손하고, 사역 앞에서는 더 기도하고, 속도보다는 방향을 더 깊이 생각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에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도 이곳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길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과 14주년,,, (프레슬라브 교회)

예쁘고 착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슬림이었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날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프레슬라브 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어려서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고 믿음이 성장하자 세례를 받았습니 다.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도시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 도시에도 교회가 있는데 자매는 프레슬라브 교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매주 1시 30분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 방송실에서의 섬김을 포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매주 먼 길을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쁘게 성장했던 자매가 대학 졸업을 앞둔 지난 부활주일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 된 형제도 고등학교 때 전도해서 예배에 참석한 청년이었기에 저희에게는 더 뜻깊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영적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루니 참으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처음 집례해보는 결혼예식이라 어색한 티가 날까 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예식이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ㅋㅋ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길 기도해 주세요.

5월 26일(주일)은 프레슬라브 교회가 세워진 지 14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4년 동안 무슬림 지역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케 하였고 그들을 통해 지역과 민족,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은혜였으며 감사함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날은 예배 후 모든 성도와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여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음~~데~~에 양도 잡고 되아지고기도 사서 바비큐도 하고 운동도 하고 교제하면서 쉬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합니다. 재 충전의 시간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말씀 앞에 더 견고히 서려는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단순, 반복, 지속의 힘 (다윗도브 교회)

장대한 골리앗처럼, 거대한 바위처럼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도브 터키계 집시들 마음 가운데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작은 틈이 생겼고 그 사이로 조금씩 말씀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작은

틈 사이에서 영원이라는 작은 희망의 싹이 숨 쉬고, 강팍했던 마음이 부서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론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지게 했고, 때론 입술의 고백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들,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볼 때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제게 힘을 주셨고 포기하지 않도록 위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15년 동안 지속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반복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서히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도편지에 나뉘듯이 주기도문을 외운 성도들이 지속해서 늘어 지금은 9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분위기를 잡고 예배에 임하니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다윗도브 교회에서 첫 헌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성도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을 포착하여 제 손에 그것을 주면서 "목사님! 헌금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15년 동안 처음 받아본 헌금이라 넘 행복하고 놀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빛의 속도로 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헌금한 돈 달라고 할까 봐,,, ㅋㅋ) 다윗도브 교회 집시들의 삶이 이래요. ㅎㅎ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은 터라 얼마를 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도 꼭 참고 성도들을 집으로 보내고 차에 타서 옆에 누가 보는지 몇 번을 확인한 후 헌금을 꺼냈습니다. 가슴이 몽클하고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불가리아 돈 25레바(한국돈으로는 만 팔천원)였습니다. 그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감동인데 15년 만에 처음 헌금하는 성도가 다윗도브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단순한 것 같았지만 복음을 들고 지속해서 찾아가 반복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에도 미동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흔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부족한 제게 사용되고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다윗도브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디지만 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곳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5일(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성도가 계란도 살아왔더라고요. ㅎㅎ

5월 25일(토)은 일 년에 한 번 있는 달란트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는 질문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학용품은 필요 없고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매일 마트 다니면서 밀가루, 기름, 설탕, 스파게티 면, 비누, 장난감, 과자 등등,,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다윗도브 교회 달란트 시장이 은혜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승, 하운, 하진이네 이야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왜 그리 시간이 가지 않았는지요, ㅋㅋ 제대 날만 기다린 것 같은데,,, 큰아들 하승이가 며칠 전 군에 입대한 것 같은데 9월에 제대라 하니, 시간이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

겠네요, ㅎㅎ 하승이가 남아있는 군 생활 믿음 안에서 잘하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대 이후 복학 전까지 계획을 잘 세워서 새롭게 시작되는 자신의 세상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윤이는 지난 3월에 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재미있는 대학 생활과 한국의 포래 애들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출석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고 있고요, 믿음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막내 하진이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축구 선수의 꿈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9월이면 12학년이 되고 내년 5월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진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축구 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막내를 보면서 그 아이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여 그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보다 하진이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가리아 기도 제목

- ◎ 불가리아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에게는 정직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 ◎ 프레슬라브 교회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 ◎ 변화되어가는 다빛도브 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 ◎ 군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승이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 ◎ 대학 생활을 시작한 하윤이가 믿음 안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 ◎ 하진(11학년)에게 건강과 지혜 주셔서 즐겁운 학교생활과 운동할 수 있도록.
- ◎ 선배선교사님(김기택, 이규자) 건강과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 ◎ 어려운 시기에 기도와 물질로 섬기시는 모든 동역자님의 교회와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이경환 E-mail: 0547fisher@hanmail.net. 불가리아 주소: bul. Pliska No:12, Kt:2, Apt No:4. Shumen, Bulgaria. TEL: 070-8237-8438

파송단체: 바울선교회 <http://www.bauri.org>. 카카오 아이디: 0547fisher

파송교회: 영산교회(02-375-0561~2) 담임목사: 이종원.

